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9일 (음력 3월 4일) 목요일

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전략공천 날벼락



광주민주주의시민연대와 80전남대 총학생회장 등 8개 단체가 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밀실 전략공천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할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유력한 전남지사 후보였던 이계호 의원을 '원내 1당 유지'란 명목으로 불출마시켜 민심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민주당이 최근에는 광주·전남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재선거와 기초단체장을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의 선택권을 뺏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전남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서구갑 재선거와 관련,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략공천 위원회로 이관했다.

서구갑에는 현재 박해자 전 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이사장 등 2명이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된 상태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전략공천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정인의 내정설도 돌고 있다.

서구갑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서 논란 끝에 여성 전략공천지역으로 전격 결정돼 박해자 당시 예비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전략공천된 바 있다.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박 전 의원에 앞선 송 이사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뷰가 뉴시스에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서구갑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 3.5%p, 응답률은 6.3%)에 따르면 민주당

특정인 내정설·경선방식 '설왕설래'...지역민 반발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후보적합도에서 50.4%의 지지를 얻은 송갑석 후보가 35.8%에 그친 박해자 후보에 비해 우위를 점했다.

송 예비후보는 "2년 전 국민의당 비랍에 장렬히 산화한 뒤 수년 간 권토중래온 후보가 있고 복수의 예비후보가 나선 만큼 경선을 실시하는게 타당함에도 어떻게 두 번이나 같은 선거구에서 전략공천한다는 말이나"고 반발했다.

지난주 광주로 내려온 중앙당 실사단도 '서구갑 전략공천 불가'에 무게가 실린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민심을 외면하고 지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날 결정된 전남 영암·무안·신안 재선거 경선 방식도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다. 백재욱, 서삼석 예비후보자간 경선이 진행되는데, 일반여론조사 100% 방식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

다른 재선거 경선지역이나 지방선거 단체장 경선의 경우 일반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투표 5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곳만 유독 일반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것 역시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그대로 경선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당이 전남 목포시정과 신안군수 후보 경선 일정을 붙여 보류하면서 전략공천설이 흘러 나오는 등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전남 22개 시·군 중 20곳에 대한 단수공천과 경선지역으로 분류했는데, 목포시정과 신안군수 등 2곳만 중앙당이 별다른 이유도 명시하지 않은채 전남도당에 경선 일정을 보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정에는 김중식 전 광주부시장과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 원장, 최기동·조요한 목포시의원 등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신안군수 경선에는 박석배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전경배 민주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김승규 전 기획재정부 국장, 임흥민 전 전남도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들 예비후보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을 뻔하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신안군수로는 전경배 당대표실 부실장과 중앙당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복당한 배용태 전 전남 부지사와 또 다른 예비후보의 목포시장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공천장=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은 지역 일꾼을 지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뺏는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이유같지도 않은 결정들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당에서도 극히 일부에서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비랍만 믿고 마음대로 공천한다면 오만한 결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역풍은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구갑 여론조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퇴

경찰이 17일 조현민 대한항공전투를 피의자로 인정한 것과 관련, 조 전무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전무의 변호를 받은 임상혁 변호사는 "이직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경찰이 출국금지 내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소환이 예상되는데, 소환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 전무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기로 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 조사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박탈을 정부에 요청했다. 관련 인사들의 숙제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올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합니다"

농협 보성군지부, 관내 6개 농협과 농업현장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보성군지부(지부장 안성열)와 별교농협(조합장 김기순) 등 보성관내 6개 지역 농·축협 임직원,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인심) 및 고흥생각주부모임(회장 유성례) 회원들은 별교읍 영등마을 일원에서 '영농 발대식 및 농기계 전달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농협이 농업 현장에서 적극적인 영농지원을 실시할 것을 선포하는 순서와 비육묘용 상토공급 및 육묘과정 일손돕기를 실시하여 영농철 부족한 일손

을 거들었으며, 마을 일대의 각종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도 병행 실시했다.

또한 농협은 이날 발대식에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농기계(분무기, 균평기, 지파기) 6대를 전달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지원에 앞장섰다.

안성열 지부장은 "이번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스타트업"은 범농협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농촌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영농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에 농협 임직원이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 영농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큰로시간 단축으로 가정은 행복해지고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장시간 근로 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